오토인코더를 이용한 불량 탐지에 관한 연구 김지섭, 김준한, 김상태, 심병효 서울대학교

{jskim, junhankim, stkim, bshim}@islab.snu.ac.kr

A Study on the Defect Detection using Autoencoder

Jiseob Kim, Junhan Kim, Sangtae Kim, and Byonghyo Shim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많은 실제 현장에서는 불량 탐지 딥 러닝 모델의 학습을 위한 불량 데이터가 많지 않고 한정되어있다. 이런 경우 지도 학습 방식으로 훈련된 딥 러닝 모델은 특히 테스트 단계에서 불량을 탐색할 때 성능이 저하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불량 탐지 기법을 제안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한 기법이 불량 탐지를 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I. 서 론

최근 딥 러닝을 이용한 불량 탐지 기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 불량 탐지를 위한 종단 간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딥 러닝 모델을 훈련할 수 있다 [1].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딥 러닝 모델의 학습을 위한 불량 데이터가 많지 않고 한정되어있다. 이런 경우 지도 학습 방식으로 훈련된 딥 러닝 모델은 특히 데스트 단계에서 불량을 탐색할 때 성능이 저하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오토인코더[2]를 이용한 불량 탐지 기법을 제안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한 기법이 불량 탐지를 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Ⅱ. 본론

원본 이미지는 클래스 내 변화, 조도 변화, 시점 변화로 인해 직접 비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한 후 추출된 특징을 불량 탐지 에 사용하고자 한다.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특징 추출에 자주 사용되는 비지도 학습 기반 딥 러닝 모델인 오토인코더를 사용한다. 오토인코더는 인코더와 디코더의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다. 인코더 f_{θ} 는 입력 이미지를 더 작은 차원의 특징 벡터로 압축한다. 반면에 디코더 g_{ϕ} 는 인코더의 출력인 특징 벡터를 이용하여 원래 입력 이미지를 복구한다. 오토인코더는 입력 이미지 x를 잘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학습된다. 즉, 인코더와 디코더의 매개변수 θ 및 ϕ 를 학습하여 입력 이미지 x와 복구된 이미지 $\hat{x}=g_{\phi}(f_{\theta}(x))$ 사이의 평균 제곱 오차를 최소화한다.

$$(\boldsymbol{\theta}^*, \boldsymbol{\phi}^*) = \arg\min_{(\boldsymbol{\theta}, \boldsymbol{\phi})} \quad \boldsymbol{x} - \hat{\boldsymbol{x}} \parallel_2^2 = \arg\min_{(\boldsymbol{\theta}, \boldsymbol{\phi})} \parallel \boldsymbol{x} - g_{\boldsymbol{\phi}}(f_{\boldsymbol{\theta}}(\boldsymbol{x})) \parallel_2^2$$

입력 이미지와 복구된 이미지가 충분히 비슷하다면 인코더의 특징 벡터는 원본 이미지를 복구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오토인코더를 훈련시킨 후 재구성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양품 이미지들의 특징 벡터를 계산한 후 평균을 취한다. 또한 모든 양품 이미지 들의 특징 벡터와 평균 특징 벡터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를 측정하고 최대 α 을 임계값 α 로 설정한다.

테스트 단계에서는 입력 이미지가 제공된다. 먼저 인코더를 통하여 해당 이미지의 특징 벡터를 추출한 다름 추출된 특징 벡터와 평균 특징 벡터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를 측정한다. 만약 측정된 유클리드 거리가 임계값 7보다 크다면 해당 이미지에 불량이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훈련 단계에서는 양품 화면 이미지만 사용하여 훈련하였으며 테스트 단계에서는 네 가지 종류의 불량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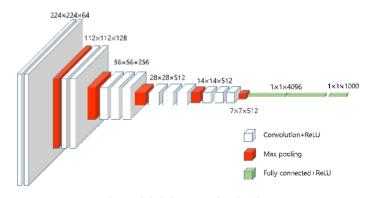


그림 1. 일반적인 VGG 네트워크의 구조

인코더로는 ImageNet 데이터셋에서 사전 훈련된 VGG 네트워크를 사용하였다 [3]. VGG 네트워크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인코더의 입력은 256x1024 사이즈의 RGB 이미지이며 출력은 131,072 차원으로 구성된 특징 벡터이다. 디코더의 구조는 인코더와 대칭으로 설계하였다. 우리는 3,000개의 양품 이미지를 이용하여 오토인코더를 훈련하였다.

표 1에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모든 불량 이미지들이 불량으로 성공적으로 분류되어 제안된 기법이 불량 탐지를 위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불량 탐지 시뮬레이션 결과

Class ID	Defect features	Total features
1	2,123	131,072
2	421	131,072
3	126	131,072
4	324	131,072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불량 탐지 기법을 제안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제안된 VGG 기반 오토인코더를 사용한 불량 탐지 기법은 적은 수의 학습 데이터 환경에서도 불량 탐지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ACKNOWLEDGMENT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대학IC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21-2017-0-01637)

참고문헌

- [1] Chalapathy, R., & Chawla, S. (2019). Deep learning for anomaly detection: A survey. arXiv preprint arXiv:1901.03407.
- [2] Sun, W., Shao, S., Zhao, R., Yan, R., Zhang, X., & Chen, X. (2016). A sparse auto-encoder-based deep neural network approach for induction motor faults classification. Measurement, 89, 171–178.
- [3] Karen S., Andrew Z., "Very Deep Convolutional Networks for Large-Scale Image Recogniti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15.